

민자유치도 좋지만 혈세 620억 들어 다리까지 놔줘야 하나

뉴스 초점
여수 경도 연륙교 설치 논란

인수협상 미래에셋측 요청
이낙연 지사 “공정 검토”
“민간사업자 부담해야” 여론

미래에셋 금융그룹 컨소시엄(이하 미래에셋)이 매입하기로 한 여수 경도의 연륙교를 혈세로 설치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이낙연 전남지사가 도정 질의 답변에서 연륙교 건설 사업비를 여수시와 전남도, 중앙정부 가 분담하는 방안을 조만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경도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자칫 정부 지원을 못받을 수 있는데다 전액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미래에셋 금융그룹 컨소시엄을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오는 12월 말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 과정에서 미래에셋 측은 연륙교 건설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편입 등을 요청해 전남개발공사가 이를 검토중이다.

문제는 62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편도 2차선, 총연장 1.9km의 연륙교 및 접속도로 건설이다. 연륙교 및 접속도로가 국도, 지방도 등이 아닌 여수시가 관리하는 도로여서 국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여수시, 전남도가 시민이나 도민에게 써야할 예산을 민

간사업 대상지의 기반시설에 쏟아붓는 것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사업을 통해 수혜를 보는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수시와 전남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를 받으려면 경제자유구역 내에 편입시켜야 한다.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라도 편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다. 경제자유구역 면적 증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본 계약 체결 목표인 12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올해 안에 심의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설사 경제구역에 편입돼 국비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지방비 부담분은 민간사업자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지난 6월 도정 질의에서 여수 경도사업과 관련 “연륙교 건설은 미래에셋이 원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주변 주민 접근 편의, 안전 대피로 확보, (투자의자)리조트 고급화 등에 다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620억원에 대한)예산확충계획을 수립해 여수시, 전남도가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지방비가 투입되는 연륙교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이다.

연륙교 건설이나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큰 경제자유구역 편입에 실패할 경우 계약 체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본 계약 체결을 12월 말 목표로 협상은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도는 전남개발공사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576억원을 들여 216만8894.5㎡의 면적에 골프장(25홀)과 콘도(100실), 기업연수부지, 상업용지 등을 조성했다. 이를 미래에셋이 3423억원에 일괄 매입하는 등 5년간 최소 1조883억원에서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아시아 최고의 명품 복합리조트를 건설할 방침이다. 중국자본도 투자 의향을 밝혔지만 전남도가 개발자연이나 난개발, 또는 정치적 리스크 등을 우려해 미래에셋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된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철도 이어 화물연대 총파업…물류운송 초비상

광주·전남 2600여대 참여
지역 수출기업들 피해 우려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 화물연대가 10일 자정을 기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광주·전남지역에서도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6면> 특히 한진해운 사태로 광양항 물동량 감소는 물론 화주기업들까지 2차 피해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철도와 화물차 등 육상 수송시스템도 차질이 불가피해 지역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반대하며 10일 새벽 0시부터 전국적으로 운송 거부에 들어갈 방침이다.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도 이날부터 운송거부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지역 기업들의 물류 운송 차질이 예상된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소속 조합원은 1100여명, 전남지부는 1500여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화물차주들로, 2600여대 차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아차 광주공장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금호타이어 등 지역 주요 기

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기아차는 하루 평균 1600여대 물류 운송을 맡고 있는 4개 운송업체의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110여명 중 8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차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금호타이어와 삼성전자는 파업 참여율이 낮아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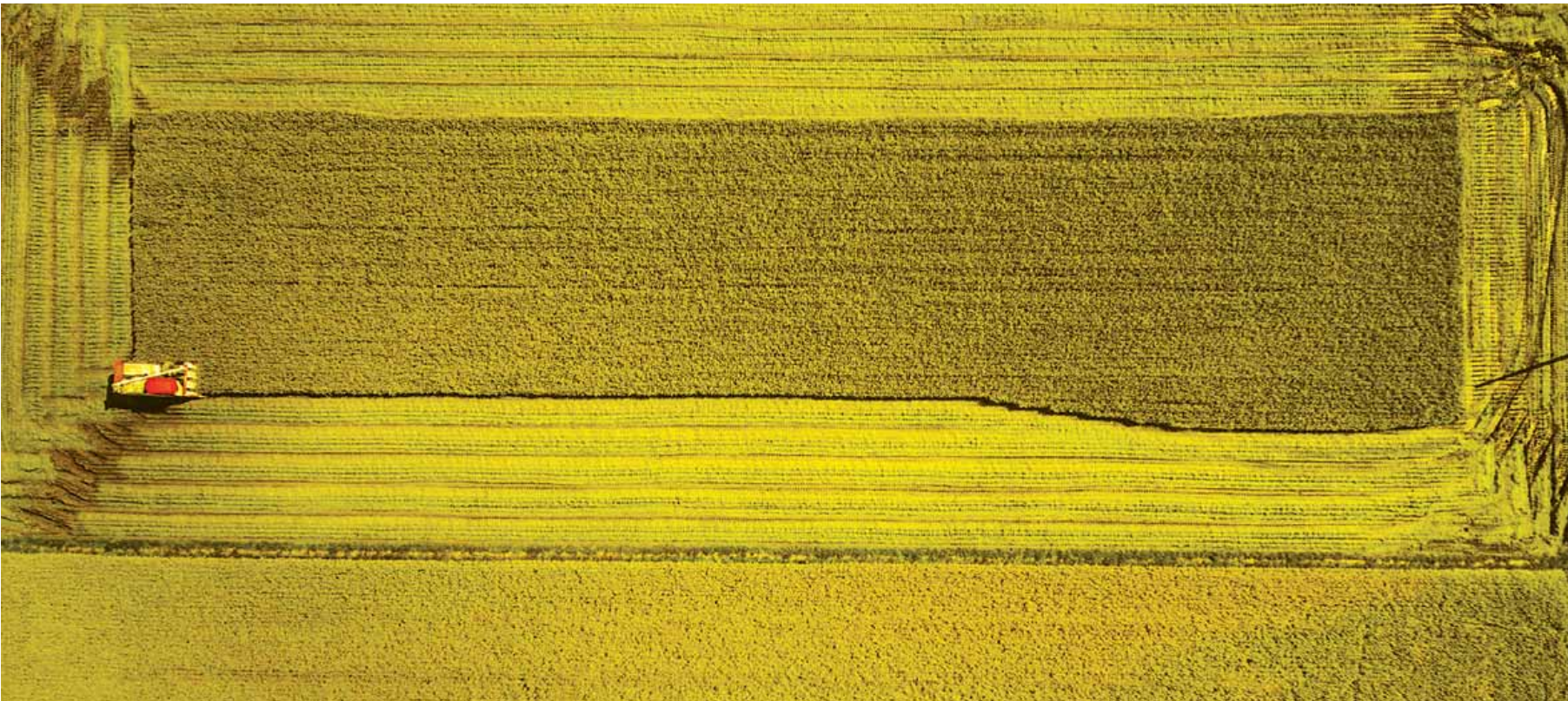
금호타이어는 운송 업체 중 10%만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적으로

확산할 때를 대비해 최대한 화물차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파업 참여 조합원이 적어 단기적으로 직접적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만일을 대비해 파업에 참여하지 대체 차량과 컨테이너 수급에 나섰다.

한편, 한진해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수출업체 등의 2차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광양항에서 입을 중장기 피해 금액도 최대 15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시름 한가득...풍년들녘 가을걷이

9일 광주시 남구 대촌동 학동마을 인근 논에서 트랙터가 논을 돌면서 벼를 베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쌀 예상 생산량이 평년보다 6%이상 많은 420만2000t에 달해 농민들은 쌀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벼 40kg당 5만원, 40만t 이상 수매해야”

국민의당 장흥서 농민 간담회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대풍 속에도 쌀값 폭락에 신음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남 장흥군 안양면 농협 종합마곡처리장(RPC)에서 쌀값 대폭락 대책 촉구 현장시찰 및 농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자리를 빌려 북한에 계속 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김정은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망나니짓을 하더라도 북한은 우리의 형제다. 평화의 대상이며 통일의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쌀값 안정을 위한 당 차원의 대책도 내놓았다.

박 비대위원장은 “저희 당에서는 정부가 최소 40만t 이상 수매하고 그 가격도 (벼 40kg당 우선 지급금) 5만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사범·사대
광주교육대학교

제42회 총동문체육대회

■일시 : 2016. 10. 22(토) 09:00
■장소 : 모교 운동장(풍향대)
■전화 : (062) 520-4555

광주사범·사대·교육대학교
총동문회장 우 흥 민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먹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 가랴!

■일시 : 10월 16일(日) 9:30~
■장소 : 모교 운동장
■전화 : (062) 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 민 수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